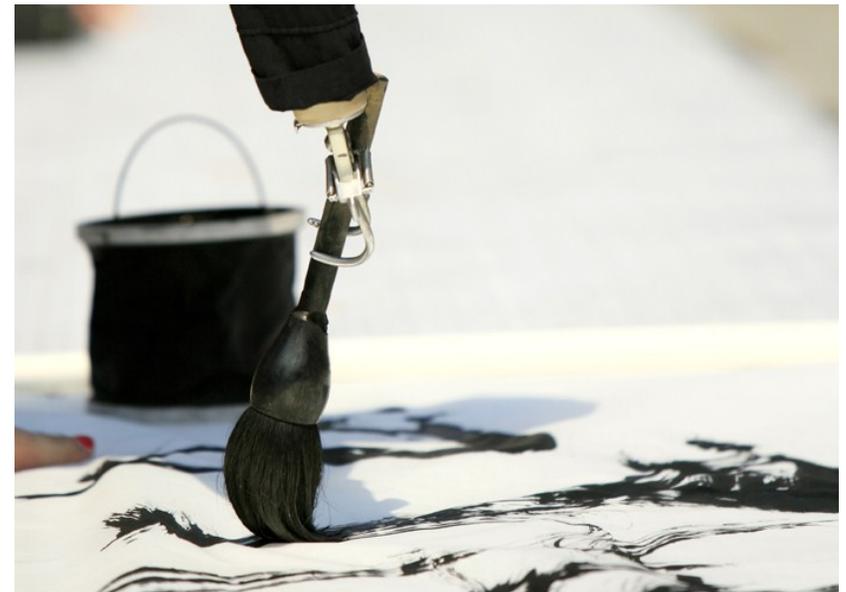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쓰기와 말하기의 가이드 라인

더 많은 정보를 원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보고와 설명을 위한 가이드 브로셔를 보십시오.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Independent Living
The University of Kansas
4089 Dole Center, 1000 Sunnyside Ave.
Lawrence, KS 66045-7561
E-mail: rtcil@ku.edu
Phone: 785-864-4095
TTY: 785-864-0706
Web: www.rtcil.org



딱 들어맞는 단어와
거의 들어맞는 단어의 차이는
번개와 반딧불의 차이만큼 큼니다.

당신의 말은 곧 우리의 이미지이다

작가와 기자, 그리고 또 다른 소통하는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단어를 찾고 최근의 알맞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오래되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종종 객관적인 표현으로 "휠체어에 묶인 사람(미국에서의 표현)" 이라고 하며, 이것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설명인 셈이다.

한 휠체어 사용자가, "나는 휠체어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휠체어는 내가 일을 하고, 놀고,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기구이다" 라고 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쓰기와 말하기의 가이드 라인의 새 편집 본에서 우리는 장애인이 선호하는 가장 최신 용어들을 제시할 것이다. 비록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책자는 미 전역의 장애인 전문가와 장애인 조직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개발되었다.

이 책자의 초판 본 1984년에 출판된 이래로, 백 만장이 넘는 사본이 배포되었으며, 전자 버전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 책자의 몇 부분은 AP 통신 스타일북에 전문 언론인을 위한 기본참고서로 채택되었으며, 미국 심리학 협회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

장애인들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이 책자를 사용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는 장애에 관해 써야 할 말과 쓰지 말아야 할 말이 간략하게 적혀있는 포스터도 제공하고 있다.

미 국립 장애 및 재활 연구소는 "장애인자립생활 연구교육센터(RTC/IL)" 를 인정하여 1984년에 초판 본을 개발하고 제작할 때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검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가이드라인 편집 본에 쏟아주신 노고에 대해 많은 개인이나 장애인 단체에 감사 드립니다. 지지해주신분들:

시골지역 자립생활 프로그램 협회
뇌질환 연합회
크리스토퍼와 다나 리브 재단
청력손실 연합회
서던미시시피대학교 장애학 연구소
전 미국 학습 장애 협회
전미 운동실조 기금
전미 환경 보건 전략 기업
국제 소아마비 건강 협회
로키산맥 ADA 센터
지역 사회 생활 조사 교육 센터를 위한 과학적 소비자 자문위원회
타잔센터
연합척수협회

캔자스 대학은 대학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민족성, 종교, 성별, 국적, 연령, 기원, 장애, 종군 경험,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부모의 상황,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이나 유전적 정보에 기반한 차별을 금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차별 금지 정책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Your Words, Our Image

당신은 장애인들의 공공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사람을 우선으로 두고, 제시되는 단어를 사용함에 의해서, 당신은 부정적이고 둔감한 관점 대신에 개개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할 수 있다.

묘사의 문제

장애인은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다 - 그들이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다. 여기의 일반적인 지침을 따른다면, 당신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묘사 할 수 있다.

장애 보다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자. 장애인, 여성 다발성 경화증, 지적 장애 아동 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을 우선" 에 두고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그들의 기능적 한계들에 초점을 두면 안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 그룹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사람' 으로서 낭포성 섬유증' 을 가진 이라고 한다.

한계가 아닌, 능력을 강조하라. 예를 들어, 휠체어에 매인 혹은 말할 수 없는 이라 기 보다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통신장치를 사용한다 라고,, 실제적으로, 휠체어 와 기타 보조 장치들은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독립생활을 제공한다.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이를테면, 피해자, 병자 나 불구 같은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장애" 란 단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객관적 용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이상 그 이야기를 장애에 초점을 두지 마라. 불치의 질환, 선천성 장애, 또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신파조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러한 접근 가능한 주거환경, 교통 수단, 저렴한 의료, 고용 기회, 차별 등, 그 같은 개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신 초점을 맞춘다.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 전문가, 교사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와 관계없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사람에게 했던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생색 내는 듯한 겸손어구는 피해라 '특별한, 장애가 있는, 또는 다른 능력을 가진, 도전적인' 과 같은 그런 용어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들을 정직하게 대할 수 없게 하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한편, "특별" 이라는 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일부 조직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별한 욕구들' 로서의, 이 용어의 사용은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많은 성인 장애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별" 이라는 용어는 또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온정주의적인 욕구를 함축하지만, 대부분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냥 장애아동이라고 말한다.

영웅적인 기대이상 성공한 사람이나, 긴 고통을 참은 성인들처럼 성공적인 장애인으로 묘사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도전을 마주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영감을 얻을 만한 묘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선입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높이고, 그들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라. "~을 앓는", "불구인", "~로 고통받는 또는 ~의 피해자인" 라는 식의 말은 동정과 구호의 무기력한 대상으로서의 그들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장애 개인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중립적인 용어로 사실을 말하라. "에이즈에 걸린 사람보다는 에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라. 이와 같이, 마치 '불행한 혹은 불쌍한' 과 같은 감정적인 묘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존중하라. 지체, 괴물, 절름발이, 저능아, 식물인간, 보기 흉한, 정신이상, 또는 바보천치처럼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당신이 각 개인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패닉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장애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아라.. 몇 가지 일반적인 문구가 마치 " 장님이나 다름없는" 처럼 부정적이지만, —"나중에 봐" 처럼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소비자는 장애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의 는 시민권 운동은 1970년대의 자립생활운동을 고무시켰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비슷한 주장으로,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이용하는 것들에 의해서, 휠체어 이용자, 인공 호흡기 사용자 또는 정신 보건 서비스의 사용자 등으로 불리길 선호한다.

자립 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말한다. 자립생활은 또한 시민권 운동으로 지역사회에 동등한 참여와 자립 생활 센터들로 구성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언급한다. 이들 비거주 자원센터들은 지역 사회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들의 핵심 서비스들은 권익옹호, 정보 및 위탁,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동료 상담 및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탈 시설화를 포함하고 있다.

통합은 아마도 비록 그 개념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립학교 프로그램들에서 그 역할에 대해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생활에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갖고 완전한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며, 그 장애 문제들이 다양성에 대한 대화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미디어의 관점에서, 통합은 5600만 이상의 미국장애인들은 대중 오락이 반영된 그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모델은 장애를 의료 개입을 통해 치료받아야 하거나 정상화 되어져야 하는 결함 또는 질병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장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혹은 장애 모델을 선호하는데, 이는 장애를 사람들 사이의 중립적 차이로서 간주하면서, 장애인들도 건강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 모델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은 개인의 장애 그 자체보다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태도, 물리적 환경, 공공 정책 및 다른 장벽들에 대한 변경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다.

일전에 걸린 질병으로부터 발생한 장애들을 논의 할 때, 질병을 암시해서는 안된다. 소아마비를 앓고 그 영향으로 소아마비를 겪게 된 사람들은 폴리오 후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재 바이러스의 활동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의 장애가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손상 (예를 들어 척수장애인이거나 뇌성마비 장애인)에 의한 결과이더라도 그들의 질병을 의미해선 안된다. 하지만 장애가 동반하는 만성 질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괜찮다; 이들은 관절염, 파킨슨 병과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된다. 이 장애인들은 그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의사와 토론하거나 충분히 갖추어진 병 의원에서 진료받지 않는 이상, 환자로서 취급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인칭 언어: 장애 단어들에 대한 일부 용어 해설

우리는 언어가 인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한마디 단어 선택이 장애인과의 대화 태도와 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전제들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인칭 언어는 문자 그대로 장애 대신에 사람을 먼저 두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 보다는 '사람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을 언급함으로써, 당신은 꼬리표 대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지만, 많은 보이지거나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용어를 제공하면서 1인칭 언어를 설명하고 있다.

AD/HD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 행동인 세 가지 범주의 증상들로 특징지어지는 유전적인 신경행동적 상태에 대한 임상진단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ADD (주의력 결핍 장애)도 이 상태의 일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권익옹호자들은 두 가지 상태들을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ADD인 사람은 주의력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산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하여, 과잉행동이나 충동 행동은 경험하지 않는다. 'ADHD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ADD인 학생' 이라고 말하라. '극도로 긴장된 사람' 혹은 '게으름뱅이' 라고 하면 안된다.

자폐 범주성 장애(ADS)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음성언어 및 비음성언어 사용의 문제들 그리고 반복적 행동들을 일으키는 복잡한 두뇌 발달 장애의 한 부분으로 언급된다. 이 증상에 있어서 '야스퍼스 증후군' 은 이 범주 중에서 보다 가벼운 영역이다. 자폐장애인은 다른 영역들에서는 한계가 없지만, 일정한 영역에서는 심각한 한계들을 지닐 수 있다. 즉, 많은 이들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의 지능을 말한다. '자폐아동' 혹은 '야스퍼스증후군' 또는 '범주장애인' 이라고 말한다. 자폐증 환자라고 하면 안된다.(또한 "A few Exceptions" 를 보시오)

장애 유머. 장애문화를 포용하는 일부 장애인들은 우리는 당신에게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편한 용어로 자신들을 언급한다. 이 친근감은 장애 유머의 한 형태이며, 그 그룹 밖에서는 그들에 의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정체성 언어. 장애공동체 안에서 일부 사람들은 사람-우선언어 보다 "정체성 언어" 를 그들의 장애 자존감을 알리는 신호의 방법으로 좋아한다. 따라서, 자신의 자폐증을 그녀의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리고 그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자폐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단장애인보다는 스스로를 절단으로 언급한다.

여전히 지도 원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 : 장애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존엄성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사람-우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존경심을 전해줄 것입니다.

장애인 공동체의 주요 개념

장애인들에 대해 기록 할 때 이러한 용어와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접근성은 장애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의 성격을 설명한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장애인 접근 가능 주차 공간이라고 말하십시오. 접근성은 또한 시력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큰 활자와 캡션이 포함된 비디오로 환자 교육 자료 같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말한다. 신체적 결함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참여의 방해물들이 환경에 있기 보다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옹호는 시설들이나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들을 시민의 권리와 욕구, 개개인의 선택권 등에 보다 더 잘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행동하는 과정이다.. 개인과 그룹의 권익옹호를 통해, 장애인은 다양한 시민권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소통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언어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 한정되거나 손상된 음성 패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언어 장애아동이라고 쓴다. 구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언어장애인이라고 말한다. 병어리는 사용하지 말아라.

척수 장애는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일정 정도의 마비를 가져온 상태를 말한다. 사지마비란 사지 말단까지 모든 기능의 상실을 일컫는다. 한편 마비는 단지 신체의 낮은 부분에서 기능의 상실을 말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개인은 영향 받는 사지에서도 일정기능은 갖고 있을 수 있다. 척수장애인은 그들 스스로를 '양쪽' 또는 '넷' 이라고 자주 언급하므로, 전달자들도 사지마비장애인, 사지마비장애여성, 척수장애인이라고 말해야 한다. 불구자나 핸디캡을 달고 있다고 하면 안된다.

약간의 예외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것에 대한 규칙은 절대 없다. 여기는 사람-우선 언어에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예외이다.

농아/농아인.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집단은 청각장애인을 말하기보다는 대체로 농아 혹은 농아인 협회(대문자로 D) 그 자체를 지칭한다. 그들은 공통 언어, 미국 수화,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특정 커뮤니티로 확인된다.

시각장애란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시각의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법적인 시각장애**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시력이 200분의 20이하의 상태이다. **저시력과 시력상실**은 시력감퇴와 다른 상태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력상실을 총칭하는 말이다. 저시력장애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시각장애를 나타내지만 아직까지는 커다란 글씨, 밝은 색깔들, 빛과 그림자, 그리고 큰 물건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시력상실**은 태어나서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한다. 시각장애아동, 저시력여성, 혹은 맹인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가 어떤 것인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생각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시각적으로 손상된** 그리고 **시각적으로 도전을 받는** 이라는 말을 부정적 단어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뇌손상이나 **외상성 뇌손상(TBI)**은 두뇌의 손상으로 인한 장기간 혹은 일시적인 뇌기능의 붕괴를 말한다. 인지(사고 기억력, 학습),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 또는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 또는 **외상뇌병변장애인**이라고 말한다. '머리가 돌았다' 라고 말하면 안된다.

화학적 및 / 또는 전기적 과민증은 신경 손상, 근육 통증과 무력감, 호흡 곤란, 위장 장애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 진료 상태를 말한다.. 화학 물질 과민증은 살충제, 용제, 세척제, 새 카펫과 접착제, 그리고 향수와 향기 제품들을 포함한 물질이나 제품들에 일상의 낮은 수준의 노출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전기적 과민증은 전기 장비 및 주파수들로부터 나오는 전자기장에 의해 유발된다.. 이러한 상태들을 소위 독물 유도 손실, 환경 질환 혹은 새집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화학물질 과민 장애인 또는 환경질환 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화학제품 공포라고 부르거나 또는 독특한 환경 과민증이란 단어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개인이 물리적 및 인지 증상에 의해 수반되는 피로가 6 개월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상태를 말한다. 만성 피로, 면역 기능 장애과 근육통 뇌수막염은 현재 가장 올바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피병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또한 앵스타인바 바이러스 증후군, 섬유근육통 증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가진 것과 혼돈하지 마라.

구개열은 입술과 잇몸을 포함한 특정 선천성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구개열 장애인이라고 말해라. 언청이라는 용어는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며 낙인 찍는 것이다.

선천성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유전적인 것은 아니다. 선천성 장애인 또는 태생적 장애인이라고 말하라. 선천성 결함이나 기형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청각장애인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의 청력 상실의 깊은 상태를 말한다. 청력 손상 또는 청력 상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손상을 부정적 단어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약함에서 심한 상태까지 청력 상실의 정도를 이르는 일반 용어로 쓰인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약한 정도에서 중간 정도까지의 청력 손실로서 보청기로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듣는 것이 힘든 사람은 말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는 정신능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성 농인 또는 난청 소년이라고 말하라. 일정 정도의 청각과 시력장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청각장애자라고 한다. 시청각결합상실 그리고 이중감각상실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당한 표현입니다. 절대 귀머거리나 벙어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A Few Exception." 을 보아라.)

발달장애는 22세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신체적 및 / 또는 정신적 장애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예로는 뇌성 마비, 자폐성 범주 장애와 감각 장애를 포함한다. 발달 장애인은 기능 수준과 장애의 범위가 넓다. 지적 장애라는 용어가 종종 발달 장애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발달 장애인들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뇌성 마비를 가지고 있는 여자,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 또는 그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저 여자는 정신지체야 라고 말하면 안된다.

화상은 화상, 외상, 질병, 선천성 조건에 의해 신체적 변화들을 말한다. 화상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시오. 화상 생존자나 화상아동이라고 말하십시오.

다운 증후군은 신체, 지적, 언어 발달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염색체 이상을 말한다.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라고 말한다. 몽골, 몽골로이드 인종, 또는 다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후기 소아마비 증후군은 질병에서 회복 후 오랜 기간 척수성 소아마비 (폴리오)를 지녔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다. 이것은 새로운 근력 저하, 관절과 근육의 통증과 피로가 특징입니다. 후기소아마비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소아마비 희생자라고 사용해서 안된다.

정신 장애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들을 말한다..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라고 말하십시오. 어떤 임상 문장이나, 또는 법률이나 의학 정확성을 위해, 정신 분열환자 정신병자, 그리고 다른 진단의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또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주의하라. 미친, 미치광이, 괴짜, , 정신 분열증, 정신 이상자, 등의 이런 말들은 모욕적이며, 정신 건강 상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발작은 간질과 같은 신경학적인 상태 혹은 후천적 뇌 손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무의식적 근육 수축, 의식의 단기 손상 혹은 실조를 말한다. 간질 장애 소녀 혹은 발작 장애 십대라고 말한다. 경련이란 말은 은 몸 전체의 수축을 동반 발작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간질환자, 흥분발작, 경련환자나 공격성 발작이라고 사용하지 마시오.

도우미 동물이나 보조견은 개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훈련된 개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발작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거나 알릴 수 있으며, 소정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정신 장애인에게 투약시간을 생각나게 하거나 또는 분노 발작중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인을 진정시키기도 한다. 이미 원숭이들만 아니라, 소형 말들도 또한 미국장애인 법 (ADA)아래에서 도우미 동물로 간주된다. 맹도견이라고 하면 안된다.

같은 성별을 가진 같은 연령 소아의 키 정규분포 상에서 키가 3% (100명 중 작은 쪽에서 3번째) 미만인 경우를 **저신장증** 이라 한다. 저신장은 사람들이 더 작은 4'10 "키 성장시키는 유전자의 다양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그룹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저신장의 사람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 서커스의 여흥의 의미 꼬마처럼 이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적 장애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개개인을 위한 환경적 개인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의 제한을 말한다. 비록 정신 지체가 이전에 임상 용어로 받아 들여졌지만, 이것은 모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연관된 조직들은 이 사용을 끝내기 위해 운동을 해왔다. ('로자의 법과 왕따의 언어 "를 참조하시오) 지적 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 박약이나 저능아라고 쓰면 안된다.

비장애는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한 용어이다. 문장이 이 정보를 요구할 때, , 신체적 가능성, 건강함, 보통, 완전함 대신에 비장애, 비장애인을 사용하시오 장애인들도 건강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신체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학습 장애는 읽기 (난독증라는 부름), 쓰기 (서자 장애), 수리 (계산력 장애), 그리고 뇌의 정보 처리 방법의 차이로 인한 다른 인지 과정 등에서 배우고 활용하는 기술 그 자체에 어려움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신경학적인 기저 상태를 말한다. 학습 장애를 가진 개인은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용어는 주로 지적 장애나 교육 기회의 부족 등의 다른 원인의 결과물인 학습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학습 장애인 이라고 말한다. 지진이나 정신지체라고 하지 않는다.

로사법과 왕따 언어

2010년에 미국 법률로 서명된 로사법은 정신지체란 말을 모든 연방, 보건, 교육, 노동법에서 없애고 '지적 장애'란 말로 대체하였다. 이 법은 9살 로사 말셀리노의 이름을 따 로사법이라고 불려졌으며, 그의 오빠 닉은 변화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 곧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만약 우리가 그 말들을 바꾼다면, 이것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의 시작 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들은 법령이나 주정부 기관의 이름에 더 많은 경어를 사용하기 위해 그들의 법률들을 개정했다. 이 장애인 공동체는 "확산시킬 단어와 끝내야 할 단어" 라고 부르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R 단어(정신지체)" 의 사용을 끝낼 것에 관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흔히 비하하고 파괴적인 단어들로 시작되는 왕따에 대항하는 싸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장애는 사람의 능력 중에 걷고,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특성 또는 기능의 제한을 두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그런 라임 병, 우울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일상 생활의 활동을 제한하는 또 다른 상태들로서,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상태를 언급할 수 있다. '불구인' 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된다. 일반적인 쓰임새로서 '장애' 라는 말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그것이 "무기능"(장애가 있는 차량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된 동종의 그룹을 의미한다. 대신 장애공동체 혹은 장애인 익호호를 사용하라.

HIV / 에이즈는 면역 체계의 질병이다. 시간이 지남에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신체가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저항하는 특정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지점까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특정 상태에 직면하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라고 진단받는다. HIV보균자 또는 에이즈보균자라고 말한다. 에이즈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는다.